

01 교회소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 역사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해 성경이 참임을 입증해 준 하나님의 선물, 무안단물.

02 생명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함, 그리고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며 살아 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

03 기획특집

‘육신의 생각’ 정복하기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이며, 왜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는지를 살펴봄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본다.

04 간증

“저도 무안단물의 역사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케 하는 메신저, 국내외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된 무안단물의 간증 일부를 소개한다.

만민뉴스

제675호 2015년 3월 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 사랑이 담긴 권능의 무안단물

성경이 참임을 입증, 치료와 응답의 역사 나타나 국내외 방문객 줄이어



축복의 ‘무안단물’을 통해 성도들은 지난 15년간 갖가지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해 왔다. 무안단물터에는 다비드 와이즈만 전 페루 부통령 부부, 미국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디렉터 알만도 피네다 박사, 러시아권 최대 크리스천 포털 사이트 ‘인빅토리’ 세르게이 벨보베츠 회장을 비롯 권능의 현장을 체험하기 원하는 국내외 많은 순례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위부터 무안단물수족관 개관을 맞아 기도하는 이재록 목사, 권능의 무안단물 기념비 제막식).

“주일 대예배 후 성도들과 함께 지하수 샘이 있는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기도를 드린 뒤, 팔팔 쏟아지는 지하수 샘물을 양손에 받아 맛보기 시작했지요. 성도 한 분이 먼저 ‘목사님! 물 맛이 달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자 너도 나도 물맛을 봤는데 정말 그 쓰디쓰던 물이 멍멍하고 달달해진 겁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열싸우고 기뻐했는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는 2000년 3월 5일 주일에 있었던 일을 15년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무안만민교회는 1999년 2월, 이곳으로 성전을 이전했다. 무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7천여 평의 대지에 각종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전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식수 조달이었다.

지하수를 파도 마실 수 없는 짠물밖에 나오지 않았고, 약 3km 떨어진 이웃 동네에서 호스를 연결해 식수를 공급받았으나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일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던 김 목사와 성도들에게 전 광석화처럼 떠오른 것이 있었다.

바로 성경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를 통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동안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무수한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짠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김 목사와 전 성도는 부르짖어 기도할 뿐

아니라 “짠물이 단물이 됐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러던 2000년 2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6주간 산상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히 무안만민교회에서는 전 성도가 릴레이 금식과 작정기로 응답의 그릇을 준비했다.

이윽고 산상 기도가 마쳐지는 3월 초,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실제로 짠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다. 식수로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용할 때 아픈 곳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까지 따름으로 국내외 무수한 성도가 애용하고 있다(관련 간증 4면).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미네랄, 중금속, 농약 잔류물, 피부반응 검사, 실험쥐를 이용한 독성 검사에서 안전성과 우수성이 확인됐다. 2010년 5

월에는 추가 수질 검사를 통해 FDA의 수출품 음료로서의 자격을 획득했고, 2013년에는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

현재 무안단물터(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에는 성경이 참임을 입증한 현장을 목도하기 위해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존하는 무안단물 수족관(우리 교회 2성전 옆)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오는 3월 5일에는 무안단물 15주년을 맞아 정구영 목사(교단 부총회장, 전 서울여대 총장)의 설교로 기념예배를 드린 뒤 축하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무안만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군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얻게 될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가 임한다고 반복해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결코 모세가 백성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자 남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라 하신 대로 오직 백성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길을 알려 주시는 말씀이었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으며 육의 사람들은 그 권세 아래 속해 온갖 시험 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어두움에서 떠나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두움에 속하므로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어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어두움에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없이 당부했지요.

모세는 마침내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요단 동편의 모압에서 파란만장한 일백 이십년의 삶을 마쳤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2.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맹세하는 출애굽 2세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 그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택하셨지요. 여호수아는 열 두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모세를 수종들면서 늘 붙좃으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금식할 때도 그와 가까운 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스승의 사명과 책임이 자신에게 옮겨왔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곁에서 지도자의 눈물과 고뇌를 가까이에서 보았으며 수많은 백성을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시며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수 1:5~6).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수한 권능을 보았으며, 40년간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고생했는지를 수없이 들어서 마음에 새겨 왔기에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앞에 참 믿음으로 순종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하며 여호수아에게 전폭적으로 순종을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 주어 축복 받은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할 곳은 예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진군하기에 앞서 그 성을 파악하고자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예리고 성은 일반 성과는 달리 내성과 외성, 두 겹의 성벽으로 돼 있었으며 금성철벽처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해 여느 때보다 경계를 단단히 했고,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리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 엄중 수색하므로 두 정탐꾼은 위태로운 처지가 됐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인 기생 라합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라는 낮은 신분에 있었지만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니라”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수 2:9~11).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예리고성을 점령하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 달라고 청했지요.

이 일로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전하고 후에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해 다윗 왕의 증조부인 보아스를 낳음으로(마 1:5~6)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라합에 대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 준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으나 라합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

나님을 택했지요. 비록 이방인이라도 선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소식을 듣고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라합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4.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정탐꾼

이방 여인 라합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 정탐꾼들은 수색자들을 피해 사흘 동안 숨었다가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고백이 아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수 2:24) 하며 오직 믿음의 고백이었지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똑같은 일을 보고 들어도 전하는 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운을 빼고 힘들게 만드는 말을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좋은 말이 아니라면 입밖에 내지 말며 자신이 말할 상황에는 믿음의 고백을 해 상대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불통도 형통케 되니 결단코 ‘안 된다, 힘들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함,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의 말, 선한 말을 뱉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모세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무수히 보았으나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6~9)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열 재앙과 흉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지만 끝내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얻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모아 놓고 설교합니다. 과연 모세의 당부는 무엇이며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일까요?

1.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모세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큰 과업을 이뤄야 할 이스라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 내용으로 그 핵심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33절에 “그러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그밖에 신명기 28장 등에 수없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계명을 버리면 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일예배 | 11:00 PM |
| 수요일예배 | 7:00 PM |
|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 8:00 PM |
|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일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장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

사람의 두뇌에는 기억 장치인 뇌세포가 있어서 지식을 입력하고 저장했다가 재생할 수 있다. 이처럼 머리에 기억된 것을 다시 떠올리는 작용이 바로 ‘생각’이며, 이러한 기억 장치와 저장된 지식, 떠올리는 작용을 통틀어 ‘혼’이라고 한다.

그런데 혼의 작용도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영에 속한 ‘영의 생각’은 마음을 진리로 일군 만큼 마음속의 진리가 혼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반면 육에 속한 ‘육신의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가 혼의 작용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서 정욕을 좇아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롬 8:7).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는데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응답과 축복을 막을 뿐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과연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응답받는 수많은 간증을 보고 들었다 해도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기도받을 믿음도 생기지 않고, 설령 기도를 받는다 해도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예컨대, 자신의 몸에 가시와 같은 이물질이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질병과는 좀 다르니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믿음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미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일들도 다른 사람이 체험한 다양한 간증을 들음으로 육신의 생각이 더 쉽게 깨어질 수 있다. 자신의 틀 가운데 한계를 짓지 말고 ‘이런 것도 능히 응답받을 수 있다.’는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4.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자신조차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거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기 마련이다. 이럴 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되지. 속히 변화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며 자신에게 힘을 준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도 날 사랑하실 수 없겠다.’ 또는 ‘아무리 해도 이것밖에 안 되니 나는 구제불능인가보다.’ 하면서 스스로 힘을 잃고 기도를 못하거나, 사명 감당도 하지 않으며 있어야 할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똑같은 아픔을 겪는다 해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속히 변화되고자 힘쓰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한다.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

1.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의 세계의 법칙을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인 지식과 이론, 틀 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동정녀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거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 즉시 자신의 이론을 동원한다. 곧 ‘결혼하지 않고 정조를 지킨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사람 몸으로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얇은 곳으로 걸어 오셨겠지.’ 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2.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받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섬겨 주면 오히려 나를 알 본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 나만 손해 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에 순종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섬기는 자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보장해 주신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머리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3. 자신의 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길을 스스로 제한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려면

로마서 8장 5~6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했다.

자신이 진리로 생각하려고 하고 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육신, 곧 마음속의 비진리를 버리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이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매순간 자신을 돌아보아 육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벗어 버리고 범사에 진리를 좇아 영의 생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한 대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불같이 기도해 마음속의 비진리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 이럴 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3월1일~3월7일

- 십자가의 도 4-8
- 우리의 열심은
- 창세기 강해 8-12
- 믿음의 분량 11-18
- 요한일서 강해 14-18
- 요한계시록 강해 1-7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5-9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 악을 미워하는 것 6 (이수진 목사)
- 정직한 자 1 (이미영 목사)
- 착한 행실 2 (이희선 목사)
- 예배 2 / 생명수 22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 (정구영 목사)
- 양선 (김수정 목사)
- 내가 시행하리라 (천우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8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6
- English 3
- 뷰티풀 라이프 14
- 옛날 옛적에 12
- 창조와 과학 5
- 흥겨운 소리 5
- 만민 지킴이 10
- 모두 드러요 24
- 내 마음의 찬양 7
- 즐거운 요리 26
- 플로리스트 5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21
- 필리핀 연합대성회 3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5-6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권능의 무안단물 통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았어요”



“10년 만에 잉태의 축복을 받았어요”

무스크라트 아시프 (파키스탄, 새사도교회)

저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남편과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임신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웃을 통해 무안단물에 대해 전해 듣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뒤 무안단물을 마시며 기도했고, 마침내 잉태의 축복을 받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허리디스크와 치질을 치료받았습니다”

허태진 집사 (1대대 1교구)

저는 수년 전, 새끼손가락 1/4마디 크기의 치질을 무안단물터에 가서 침수한 뒤 치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던 작년 7월에는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지요. 저는 그때도 성경에 나오는 나이만 장군처럼 무안단물터에 가서 믿음으로 일곱 번 침수한 뒤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았습니다”

다니엘 푸엔페스 아교스타 (멕시코, 산부인과전문의)

제 아들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 부위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를 방문한 한국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출장팀으로부터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바르거나 마시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무안단물을 발라 주며 기도했지요. 과연 놀랍게도 그 주간에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화상이 매우 신속히 치료됐어요”

박선자 권사 (2대대 14교구)

조리를 하던 중 뜨거운 육수가 제 허벅지와 무릎에 엇질러져 무안단물터에 데인 곳에 부으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의 권유로 세상 방법으로 얼음찜질을 하니 오히려 시리고 따갑고 통증이 심했지요. 다시 무안단물터를 환부에 계속 부으니 신기하게도 통증이 이내 사라지고 시원해졌으며 아무 후유증 없이 신속히 치료됐습니다.



“역류성 위염, 동상을 치료받고 시력도 좋아졌어요”

시모다이라 미야코 (일본, 이다만민교회)

저는 무안단물을 마시고 역류성 위염의 고통에서 해방됐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열 발가락에서 피가 나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와 무안단물로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전 우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안약 대신 무안단물을 꾸준히 뿌리니 0.6이었던 시력이 1.5까지 회복됐지요.



“탈모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주미자 집사 (1대대 7교구)

저는 여자임에도 앞머리 탈모가 있어서 고민하던 중 전도를 받았습니다. 고민하던 제게 “무안단물을 뿌리세요.”라고 알려 주셔서 이후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믿음으로 뿌리며 앞머리가 나기를 기도했지요. 6개월쯤 됐을 때 눈에 띄게 잔 머리카락들이 많이 자랐고, 지금은 머리카락이 많이 나고 자라서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부러진 쇠골이 회복됐습니다”

벤자망 드부레이 (프랑스, 인터넷 성도)

저는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축구 시합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쇠골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통증이 아주 심했으나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nin.org/foreign/main_fr.asp)에 있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무안단물을 마실 뿐 아니라 환부에 뿌렸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즉시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수술 없이 쌍꺼풀이 생겼어요”

김은미 집사 (1대대 1교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때의 일입니다. 친구가 예배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해 주시는 기도를 받은 뒤 소원하던 쌍꺼풀이 생겼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저도 예쁜 쌍꺼풀을 소원하며 기도받았지요. 그 결과, 한 쪽 눈에 쌍꺼풀이 생겼고 나머지 한 쪽 눈도 믿음으로 무안단물을 바르니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난산 끝에 죽어가던 송아지가 살아났어요”

제야메리 성도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저희 집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난산으로 급기야 송아지가 나오다가 중간에 멈춰 버렸습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수의사도 구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송아지가 죽을 거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구해 온 무안단물이 떠올랐습니다. 급히 무안단물을 소에게 마시우자 놀랍게도 정상 분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무안단물로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김별 자매 (1청년선교회)

발바닥에 생긴 티눈이 점점 커져 신발을 신거나 걷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02-830-5320)를 받으며 꾸준히 무안단물에 발을 담그니 티눈이 물렁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빠졌지요. 제 동생은 눈 다래끼를, 어머니는 심각한 주부습진을 치료받으셨고, 할머니는 죽어가던 감나무에 무안단물을 뿌려 감나무가 살아났다고 즐거워하십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자매회,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천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